

브라운대 한인학생 입학아단체 소모임 활동위한 재정지원 호소

3~16세의 한국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대학생 입학아 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01년 9월 로드 아일랜드주에 있는 브라운대 2학년에 재학중인 한국유학생들로 구성된 '한인 입학아 멘토링 프로그램'(KAMP)이다.

KAMP는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입양아들에게 한국 문화를 주기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이들은 1~2명의 브라운 대학생들과 함께 일주일에 두시간 가량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 및 예절과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KAMP는 한인 입양아들은 KAMP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성적 향상은 물론 정신질환 및 마약, 술 남용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KAMP에 따르면, 지금까지 KAMP 소속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자발적으로 입양아들을 만나 한국을 가르쳤고, 자신의 용돈을 쪼개는 것은 물론 주말마다 각종 기부금 모으기 행사를 펼쳐 활동을 전개해 왔다.

KAMP는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대학교 동창회, 한인학생연합회(KASA), 뉴잉글랜드한인회 등에 감사한다며 입양아들이 후에 생길수 있는 고민이나 한국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갈 때 옆에서 의지가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니, 오빠가 되어주지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KAMP를 돕거나 도움이 될 만한 자료 및 단체, 또는 모임에 관한 정보는 e-메일(cindy@hanmail.net 또는 Hyun_Bae@Brown.edu)로 보내면 된다.



'이미지 라이프' 여름호 발간 전혜린씨 육필원고 등 수록

세계 속의 동포 교양지를 표방하는 '이미지 라이프' 여름호(사진)가 나왔다.

여름호에는 미주 이민 100주년 특집으로 도산 안창호선생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동화씨가 소장하고 있는 요절한 천재작가 전혜린씨의 육필원고, 의학칼럼, 육아 교육법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려 있다. 구입 가격은 6달러95센트. 문의 (213)380-9912